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의 정재영입니다.

우리는 도버해협을 건너서  
파리로 갑니다.

"첫 번째 불이 켜지면  
연회가 시작된다."

**19C** 이탈리아 작가 아미치스는  
그랑불바르에 서서

파리 저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의 풍경은 **19C** 작품입니다.  
**1826**년 개설편이 완성되고

같은 해, 콩코르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졌습니다.

**19C** 후반에는 금빛 장식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열고

대로를 따라 가스등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만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과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오르세 역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연회를 즐기기 위해

파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빛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일찍이 고대 로마인들은  
시테 섬에 도시를 세운 후

그곳을 루테티아 라고  
불렀습니다.

블루바르라고 불리는  
파리의 큰 길과

센 강에 있는 **37**개의  
다리에 불이 켜지고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에펠탑에  
2만 개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

파리는 문자 그대로  
빛의 도시가 됩니다.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으로  
이어지는 블루바르

샹젤리제는 빛의 거리로  
바뀝니다.

한 작가가 시적으로 표현한 대로  
연회가 시작된 것인가요?

파리 여행에서는 이 빛의  
의미를 추적합니다.

오늘의 파리가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빛의 밝기가 강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에스프리라고  
흔히 표현되는

섬세한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몽테뉴의 발길을 따라서  
에스프리 정신을 탐사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빛의 속성의  
명증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고대 학문을 깨트리고

명석판명한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데카르트  
철학에서 드러나는 명증성입니다.

"나는 한 도시의 네 거리나  
교회당 속이나 광장 한복판에

초상을 하나 세워놓으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을 쓴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몽테뉴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의  
이름으로 남았고

시테 섬 아래의 대학 거리에서는

그의 초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몽테뉴 거리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샤넬, 루이비통, 디올 등  
프랑스의 대표적 브랜드와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등 고가의  
명품 브랜드숍이 들어선 이 거리는

이제 파리를 대표하는  
그랑 블루바르

샹젤리제 거리보다도 더 유혹적인  
쇼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몽테뉴라는 이름은  
어떤 이에게는

파리의 거리 이름으로  
더 익숙하겠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  
문필가이며 철학자 이름입니다.

몽테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스타일과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을 그는  
'ESSAIS'라고 달았습니다.

영어로는 에세이 우리말로로는  
수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책의 제목에 그냥  
수필 또는 에세이라는

보통명사를 붙인 제목인데  
따지고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그런 종류의 책은 몽테뉴가  
처음 쓴 것이거든요.

파리에서 시작하는 철학 여행의  
첫 장을 몽테뉴에서 시작하는 것은

프랑스 철학의 특징인 투명성이  
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몽테뉴 스스로가 놀랄 만큼  
크게 히트를 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전해집니다.

1680년 몽테뉴가 <수상록>  
1, 2권을 출간한 후에

당시 프랑스 국왕 앙리 3세를 만났습니다.

앙리 3세도 <수상록>의 독자였던 모양입니다.

“내가 당신이 쓴 책을 아주 좋아해”라고 얘기하자 몽테뉴가 답합니다.

“폐하, 그렇다면 저도 좋아하시겠군요.

제가 그 책을 만든 것처럼 그 책은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든다는 식의

격언이 아닙니다.

몽테뉴 <수상록>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솔직한 관찰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수상록 첫 대목에 독자에게 보내는 말에서

몽테뉴는 그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자신이나 자신의 집안일에 관한

사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다. 완전히 별거벗은 모습을 통째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몽테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자신의 식사 버릇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법

방귀 푸는 거, 성기와 섹스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책에 결코 담을 수 없는 내용

그러나 일상적 삶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몽테뉴 자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담고 있습니다.

파격이죠.

이렇게 금기라면 금기를 다루는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 다루는 스타일이 매우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금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전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사상가들을

종횡무진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마치 고전 중에서

흥미로운 대목만 골라 읽는 듯한  
지적 허용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과 여행을 즐겨 한  
**16C** 프랑스 교양인 몽테뉴가

자신의 이름을 딴  
명품거리를

**21**세기에 와서 여행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명품에 홀린 군상을 향해서  
냉소적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이 거리 풍경에  
박수를 쳤을까요?

몽테뉴 거리를 빠져나가  
지금의 센 강변도로가 된

쿠르를 따라 걸으면 그랑 팔레와  
프티 팔레가 나타납니다.

산책길을 뜻하는 쿠르와  
궁전이란 뜻을 가진 팔레는

**17C**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명소였습니다.

쿠르의 정식 명칭은  
쿠르 라 렌느(**Cours-la-Reine**)

곧 왕비의 길이란  
뜻입니다.

후에 수많은 쿠르가  
생겨났지만

파리의 시민들은 유독 이  
왕비의 산책로만 쿠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1616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 왕비가 된  
마리아 데 메디치가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피렌체의 후원자  
메디치 가문 이야기는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에서  
다들 예정입니다.

콩코드 광장을 지나면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루브르 궁전입니다.

개선문에서 상젤리제 거리를 거쳐  
센 강을 거슬러 가는 이 길은

마치 시대를 거슬러 살펴보는  
시간 여행 같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시테 섬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센 강을 건너가면  
파리 대학로입니다.

몽테뉴 초상은 콜레주 드 프랑스와  
파리 4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소르본 대학이 있는 대학로  
뒤쪽 공원에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죠.

수도승 같은 복식의 몽테뉴  
오른쪽 발이 황금색이죠?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에 파리  
대학 학생들이

행운을 얻기 위해 그의 발을  
열심히 닦았기 때문입니다.

명품가에서는  
패션의 아이콘

대학가에서는 행운의 아이콘이  
된 셈입니다.

근대 세기의 진원이 될  
15C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 후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으로

뺏어나갔지만

가장 큰 길은 파리로  
통했습니다.

프랑스 르네상스를 이끈 왕으로  
평가되는 프랑수아 1세는

로마인이 그리스 문화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힘 있게 하고

세계 지배의 도구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라틴어를 번역해서

프랑스 문학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C가 되면 프랑스 인은 자신들이  
근대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을  
능가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몽테뉴는 16C 프랑스 르네상스  
수준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셈입니다.

파리에서 <수상록>  
1, 2권을 출간한 몽테뉴는

담석증 치료를 겸해서 오랫동안  
꿈이었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납니다.

말을 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그의 동생을  
포함한 4명의 귀족과

그보다 많은 하인들이  
동행했습니다.

17개월 동안 여행 기록은  
몽테뉴가 죽은 뒤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몽테뉴의 여행 코스는  
우리가 가고 있는

철학 여행 코스와  
많이 겹칩니다.

그가 여행한 도시들은 바젤,  
바덴, 아우크스부르크, 인스부르크,

베로나, 베네치아, 파도바,  
볼로니아, 피렌체,

시에나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코스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정신은 계속 움직인다.

다른 나라의 생활 모습이나  
사상과 풍속을 보면서,

인간 본성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꾸준히 흥미하는 것보다  
인격 형성에 더 좋은 공부는 없다.

여행하는 동안 몸은 한가하지도  
바쁘지도 않다.

이렇게 적당한 운동은 활력을 준다.  
나는 담석증을 앓고 있지만,

말을 타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을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몽테뉴는 도시마다  
생활 습성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침대가 높아서  
디딤판이 필요했지요.

독일은 침대가 방바닥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침대 주위에  
커튼이 쳐 있었고,

독일에서는 커튼이  
없었습니다.

바젤에서는 포도주를 물에  
타지 않고 그냥 마셨고,

독일 도시에서는 15분마다  
종을 울려댔습니다.

어떤 곳은 모과로 된  
수프를 내놓았고

어떤 곳에서는 고기가  
수프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같이 간 일행은 매우  
언짢아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환경에 잘  
적응하며, 취미도 평범하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방식은

내게 색다른 흥미를 던져주지만,  
아무런 감명을 주지는 않는다.

모든 풍습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다.

납으로 만든 접시든, 나무  
또는 토기로 된 접시든,

고기를 삶아냈건, 구워냈건,  
기름이 호두 기름이든

올리브 기름이든  
내게는 마찬가지다.

언젠가 프랑스 밖에 갔을 때,  
누가 나를 대접한다고

프랑스식으로 차려올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를 무시하고  
외국인이 뻑뻑이 앉은

식탁 사이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적도 있다."

그러나 같이 일행하는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불평하는 일행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 풍습에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낮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집을 떠나자마자  
물을 떠난 고기같이 굴었다.

어디를 가나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고 낯선 것을 저주했다.

그러다가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요란하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망토 속에 가두고

낮선 세계와 접촉을 차단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닌가.”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방식도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내 눈에 비친 대상을 나와  
떼어놓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을  
스스로 관찰한 것입니다.

이 관찰 대상에는  
몽테뉴 자신은 물론이고

몽테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아내와 딸이 포함되고

또 동물과 식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몽테뉴의 관찰대상에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만난

고대의 현인들의 모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머리를  
옆으로 가우뚱했던 버릇과

알키비아데스가 부드러우면서도  
결직한 말투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의식적으로 자기  
미모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케사르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잘 긁었는데

그것은 그가 괴로운 생각에  
자주 잠겼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콧등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가 천부적인  
조롱꾼임을 뜻한다.”

1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버릇까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해 뒀죠.

마치 명탐정 셜록 홈스가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듯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 인물들의 희한한 버릇을  
몽테뉴는 어디에서 안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서재에 쌓아놓은  
책에서 매의 눈으로 찾아냈겠죠.

몽테뉴의 서재는  
유명합니다.

그 서재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몽테뉴 시에 있는 그의 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형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천 권이 넘습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200년쯤 뒤에 옥스퍼드  
보들리안 도서관 장서가

2000권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의 끝자락과  
근세의 첫 자락이 겹치는

르네상스 시대는  
책이 귀했습니다.

어떤 책은 제목만 알려져 있지 정작  
그 책은 실종된 것도 많았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진수가 담긴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그렇습니다.

<수상록>에서 몽테뉴는  
플라톤이나 키케로보다도

이 책을 더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1417년 수도원에  
꽂꽂 숨겨진 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몽테뉴죠.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가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고전 번역과 출간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대번역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프랑수아 1세는 왕립 학사원을  
세웠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립 인쇄소도 세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조판공을 시켜서  
그리스 문자를 조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왕립 활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궁정의 후원을 바탕으로  
고전 문헌 발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헌 발간 작업은

완성된 원고를 단순하게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사본으로 된 문헌들을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개정하고 분류하고 또 주석을 다는  
대역사를 말합니다.

이 작업을 총지휘한  
로버트 에티옌은

바로 몽테뉴가 진정한 우정을 나눈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몽테뉴의 서재에 있는 책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몽테뉴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와서  
3권을 추가로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섬세한  
에스프리 정수를 보여줍니다.